

조선어 격토결합구조의 유형과 특성

양 목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짚었습니다. 문법구조가 짚었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었다는것을 말합니다. 특히 조선말은 토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짚여있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조선어에서 토들은 문장에서 하나의 토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결합하여 풍부하고 섬세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언어실천에서는 단순토들보다 결합토들의 쓰임이 더 적극적이다.

여기서는 격토로 이루어진 결합토들의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구조적측면에서 볼 때 격토들로 이루어진 결합토들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갈라볼수 있다.

첫째로, 두개의 격토로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 여격토 《에, 에게》뒤에 다양한 격토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여격토는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사실이 간접적으로 미치는 대상, 행동의 방향, 목적, 장소, 원인, 수단, 시간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격토는 다른 격토들인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조격토, 구격토와 결합을 이루면서 더 섬세하고 풍부한 의미를 나타낸다.

여격토 《에》와 조격토 《로》의 결합

ㄱ. 운광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선행공정인 굴진과 채광작업의 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없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광물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켜세울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ㄴ. 변혁은 승리했다. 다시 더 새로운 변혁으로! 말하자면 이 나라의 농민들의 투쟁력사에 이전에 없던 커다란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라고 할가!

실례문 ㄱ, ㄴ에서는 토 《에》와 《로》가 서로 결합하여 행동의 목표와 방향을 나타내고있다.

격토결합으로 이루어진 《으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실지 문장에서 나타내고있는 문법적의미는 행동에 대한 목표의 의미보다 방향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나타내고있다.

오늘 결합토 《으로》는 행동의 추상화된 목표를 대상으로 내세우는 문법적의미실현에 참가하는 굳어진 하나의 토처럼 발전해가고있다.

ㄷ. 농촌일군자녀들의 공장, 기업소, 도시으로 이동, 이것은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있을수 있는 현상으로 좋게만 볼 일이 아니었다.

ㄴ. 전국의 청년일군답사대원들은 삼지연을 떠나 대오앞에 붉은기를 휘날리며 백두산 에로 향하였다.

실례문 ㄷ과 ㄴ은 실례문 ㄱ, ㄴ과는 달리 결합토가 추상화된 목표를 대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실지 대상을 나타내고있다. 이때도 토 《에》와 《로》는 행동수행의 대상이라는 의미와 행동수행의 방향의미를 함께 나타내면서 쓰이고있다.

○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생활향상에로!

○ 모두다 《70일전투》에로!

우의 실례문들에서 쓰인 결합토 《에로》는 강한 호소성의 뜻빛갈을 나타내는 구호형식에서 많이 쓰이고있다. 이런 구호형식에서는 토 《에》와 《로》가 따로 서로 떨어져서는 의의가 없으며 함께 결합되어서만 자기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

여격토 《에게》와 조격토 《로》의 결합

○ 이 땅에 생을 둔 삶의 행복도 이 나라 공민으로서의 영예도 원군에 있기에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지성의 마음은 낮이나 밤이나 병사들에게로 달려간다.

○ 토론이 끝나자 모든 관중들의 눈길이 그에게로(한테로) 쏠렸다.

우의 실례문들에서는 결합토 《에게로》가 활동체명사와 결합하여 행동의 실질적인 대상과 행동수행의 방향적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여격토 《에게》와 주격토 《가》의 결합

○ 나는 편지를 영희에게(한테가) 아니라 순이에게(한테) 주었다.

우의 실례문에서는 《영희》에게 붙은 결합토 《에게가》가 뒤에 오는 《아니다》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여격토는 이외에 대격토나 속격토, 구격토와도 결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합은 점차 소극화되어가고있다.

— 위격토 《에서,에게서》뒤에 다양한 격토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위격토의 문법적의미는 행동이나 상태가 진행되는 장소, 출발점, 행동의 동기, 비교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위격토는 주격토, 속격토, 구격토, 대격토와 결합을 이루면서 다양한 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

ㄱ. 철이는 오후에 교실에서가 아니라 전자도서관에서 학습한다.

ㄴ. 그이께서는 이미 모든 문제해결에서의와 마찬가지로 경제건설에서의 성과도 어떻게 대중의 창발성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즉 대중령도에 그 비결이 있다는것을 여러 기회에 강조하셨다.

ㄷ. 배나무골에서의 농사실적은 우리 마을에서와 별로 차이가 없다.

ㄴ. 우리는 항상 어느 장소에서를 막론하고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실례문 ㄱ은 행동이 진행되는 두개의 장소가운데서 주격토와 결합된 장소를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위격토와 주격토의 결합은 대체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면서 쓰인다.

실례문 ㄴ에서는 위격토에 속격토, ㄷ에서는 구격토가 결합되어 장소의 의미와 함께 규정과 대비의 의미를 그대로 다 나타내고있다.

실례문 ㄴ에서의 결합토는 위격토와 대격토인데 위격토는 기본의미를 나타내지만 대격토는 부차적인 의미 즉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기만 한다.

— 조격토 《로/으로》뒤에 일부 격토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조격토는 행동의 수단, 도구, 재료, 자격, 방향, 결과, 양상, 행동이나 상태가 실현되는 한정된 시간을 표시하는 대상,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조격토는 주격토, 속격토와 결합하여 결합토를 이룬다.

ㄱ. 우리 공군의 맹렬한 폭격은 정예를 떠드는 미해병대의 도하기재를 거의다 부셔버렸다. 그 도하기재의 파괴는 땅크와 포를 비롯한 전투기재의 대전방향으로의 이동을 파탄시킨것이였다.

ㄴ. 그는 원래 농민으로 살아온지라 농민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할것을 결심하였다.

ㄷ. 《뉴욕타임스》지에서는 금강전투의 실패를 작전전술상실패로가 아니라 조선인민군의 막강한 실력에 의한것으로 분석하였다.

실례문 ㄱ, ㄴ은 조격토와 속격토가 결합하여 방향의 의미와 규정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고있으며 ㄷ은 조격토가 주격토와 결합하여 두 대상중 하나의 대상을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이외에 조격토는 대격토와 구격토와도 일부 결합하기는 하지만 매우 적게 쓰이고있다.

— 구격토 《와/과》뒤에 다양한 격토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구격토는 상대로 하는 대상을 나타내거나 대상성과 관련된 단어나 기타 단위를 려거나 나란히 이어주는 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 구격토는 속격토, 대격토와 결합하여 결합토를 이룬다.

ㄱ. 우리와 원수들과의 대결은 힘과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사상, 정신과 정신의 대결이다.

ㄴ. 어찌보면 나는 바로 그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결을 떠나고싶지 않고 떠날수도 없고 또 떠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그이와의 상봉직후부터 벌써 싹트기 시작한것인지도 모른다.

ㄷ. 이 강은 군대와 인민들과를 끊을수 없는 혈육의 정으로 련결시키고있다.

실례문 ㄱ에서는 구격토의 기본의미인 두 대상의 동등연결의 의미에 속격토가 결합되어 서로 자기의 의미를 다 그대로 나타내고있으며 실례문 ㄴ에서는 뒤의 대상과 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속격토의 쓰임으로 문장에서 비교적 자연스러움을 나타낸다. 실례문 ㄷ에서는 구격토와 대격토가 결합되어 두 토의 기본의미를 기본적으로 함께 나타내고있다.

둘째로, 세개의 격토로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조선어에서는 세개의 격토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도 자연스럽게 쓰이고있다. 여기에는 격토들인 여격토와 조격토, 속격토의 결합이 기본이고 여격토와 조격토에 구격토와 주격토가 결합된것도 있다.

— 여격토와 조격토, 속격토로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 당위원장동지는 사회주의에로의 길은 새롭게 개척해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이

고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난관과 시련, 예상치 못했던 사태도 있을수 있다고 하면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결합의 원인을 객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상기시키였다.

우의 실례문에서 여격토와 조격토의 결합은 행동의 목표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면서도 방향적의미를 좀더 강하게 표현하고있다. 여기에 다시 속격토가 결합하여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다른 격토들의 이러한 결합은 불가능하지만 여격토와 조격토에 다른 토의 결합은 오늘날 아주 많이 쓰이는 문법적형태라고 볼수 있다.

— 여격토와 조격토에 주격토나 구격토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토들이 있다.

○ 해방후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마음은 개인농에로가 아니라 협동화_{에로}로 쏠리고 있었다.

○ 당은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농업전선_{에로와} 석탄전선_{에로}로 부르고있다.

우의 실례문들에서는 토 《에로》가 나타내는 방향적인 의미에 구격토의 렬거의 문법적 의미와 주격토의 부정대상지정의 문법적의미를 기본적으로 다 나타내고있다.

이 류형도 《에로》가 하나의 토로 점차 발전해가고있는것을 전제로 한것이다.

토결합은 대체로 두개의 독자적인 결합을 기본류형으로 하며 세개의 토결합은 극히 드문 문법적현상이다.

이러한 격토들로 이루어진 결합토들은 몇가지 특성을 가진다.

그 특성은 크게 류형의 측면, 형태—구조적측면, 의미—기능적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결합류형의 측면에서 볼 때 세개의 격토들로 이루어진 형태보다 두개의 격토로 이루어진 형태가 더 다양하다.

이것은 격토들의 결합에서 기본은 두개의 격토로 이루어진것이 기본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세개의 격토로 이루어진 형태도 두개의 격토(여격토, 조격토)는 고정적이고 여기에 다른 두개의 격토가 결합되어 이루어진것이다.

격토들의 결합류형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격토들의 결합수	격토들의 결합류형
두개의 격토들의 결합	여격토→주격토, 조격토, 구격토
	위격토→주격토, 속격토, 대격토, 구격토
	조격토→주격토, 속격토
	구격토→속격토, 대격토
세개의 격토들의 결합	여격토→조격토, 속격토
	여격토→조격토, 주격토
	여격토→조격토, 구격토

우의 표와 같이 격토들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 모든 격토들이 다 결합에 참가하는것이 아니라 일부 격토들만 반복적으로 참가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특히 격토들의 결합에서 여격토와 조격토가 가장 활발하게 토결합에 참가한다.

형태-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격토들의 결합위치가 비교적 고정되어있는데로부터 격토들로 이루어진 토결합의 형태를 이루는 토들의 빈도도 이에 따라 규정된다는것이다. 이것은 격토들사이의 결합에서 단어의 줄기뒤에 직접 붙는 격토와 직접 붙지 않는 격토들의 경계가 일정하게 정해져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격토들이 결합하는 경우에 결합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구분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계
앞위치				5	5	4	4	18
뒤위치	4	4	4			1	4	17
계	4	4	4	5	5	5	8	35

※ 여기서 표시된 수자들은 격토들의 결합유형에서 매 격토들이 앞위치와 뒤위치에서 쓰이는 유형의 수자들이다. 즉 여격토가 앞위치(5)라고 한것은 여격토는 앞위치에서만 5번 다른 격토들과 결합유형을 이룬다는것이다.

표에서 보면 격토들이 단어의 줄기뒤에서 자기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결합되는것 같지만 일정한 내적결합규칙이 존재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여격토와 위격토, 조격토는 항상 단어의 줄기뒤에 직접 붙는 격토들이며 주격토와 속격토, 대격토는 그뒤에 붙는다.

례를 들어 《에서를》의 결합형태와 《를에서》의 결합형태를 볼 때 《에서를, 에를, 에게를》은 자연스러운 격토결합을 이루지만 《를에서, 를에, 를에게》와 같은 결합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속격토나 주격토는 거의가 토의 결합에서 앞위치에 나타나지 않으며 다른 격토의 뒤에 결합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문법적의미로만 쓰이는 특성이 있다.

주격토는 뒤위치에서 《...가/이...아니라(아니다)》형태외에는 다른 문법적형태로 거의 결합을 이루지 않고있다. 즉 주격토가 나타내는 행동의 주체에 대한 기본의미와 다른 문법적의미는 격토들의 결합의 뒤위치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조선어에서 격토들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어떤 격토는 결합의 앞위치에서만 쓰이고 어떤 격토는 다른 격토의 뒤에서만 쓰이면서 그 선후위치가 명백히 갈라진다.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격토들의 결합을 이루는 모든 토들의 각이한 결합조건에서 나타내는 문법적의미의 값은 서로 다르다.

토결합에 참가하는 대상토들은 자기의 여러가지 의미가운데서 일부 제한된 의미로만 결합을 이룬다. 이때 토들의 문장론적기능도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토의 결합에 참가하는 토들의 문법적의미의 값이라하는것은 매 결합유형에서 토들이 자기의 문법적의미를 어느 정도로 실현하는가 하는것이다.

격토들의 결합에서 두개의 격토가 서로 자기의 문법적기능을 다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의 줄기뒤에 직접 붙는 격토는 그 뒤위치에 오는 격토보다 문장론적기능이 약한 경우가 있다. 즉 두개의 서로 다른 격토들의 결합에서 하나의 토가 문장에서 의미-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토는 일정한 문법적의미만을 나타낸다는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유형을 통하여 어떤 토들은 토가 나타내는 문법적의미가운데서 기본의미와 결합하여 쓰이는 토도 있지만 기본의미가 아닌 부차적의미와 결합하여 쓰이는

토도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어에서 여격토와 조격토의 결합은 결합빈도가 가장 높은 토로서 점차 하나의 토로 되어가고있다. 이로부터 두 토는 독자적인 자기의 문법적의미외에 서로 결합되어서도 실질적인 대상에 대한 방향과 추상적인 목표에로의 방향적의미를 가진 하나의 토처럼 굳어져서 쓰이므로 그뒤에 다시 격토가 결합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일부 문법책들에서는 오늘 함께 쓰이는 《에로》를 점차 하나의 토로 보려는 견해도 나오고있다.

우리는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을 더욱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격토들의 각이한 결합으로 나타나는 풍부한 문법적의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격토, 토결합